

괘불전

<세 부처의 모임 - 상주 용흥사 괘불>

유수란 | 203호 불교회화실 | 18:00~18:30

괘불은 많은 사람이 모인 법회나 의식이 열릴 때 사찰의 야외나 마당에 거는 대형 불화를 말합니다. 사찰 경내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대중으로 붐비고, 법당 밖에서 불교 의식이 진행됩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예배 대상인 부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모습을 드러낸 부처는 크기가 매우 커서 자리를 잡은 수많은 이가 가까이, 혹은 멀리서도 그 모습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상주 연악산 기슭에 자리한 용흥사에는 아주 큰 괘불 한 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684년 5월 13일 꽃내음으로 가득한 봄날, 상주 연악산 용흥사에서는 9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대형 괘불을 조성하였습니다. 괘불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은 살아서는 질병의 고통 없이 장수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하였을 것입니다. 길이 10여 미터가 넘는 대형 화면에는

석가모니불, 약사불, 아미타불의 모임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웅장하고 성스러운 세 부처의 모임에는 이 뜻깊은 자리를 찬탄하기 위해 38명의 인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용흥사 괘불>은 화사한 색채와 다채로운 문양이 선명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0미터가 넘는 화면에 가득 피어난 아름다운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세 부처가 모인 장면을 화려하고 성스럽게 그려내고자 했던 불심 가득한 예술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용흥사 괘불과 함께 괘불을 보관하는 함, 익살스러운 나한상, <신중도>, <현왕도> 등 용흥사의 조각과 회화 작품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괘불전 <세 부처의 모임>을 통해 천년고찰 용흥사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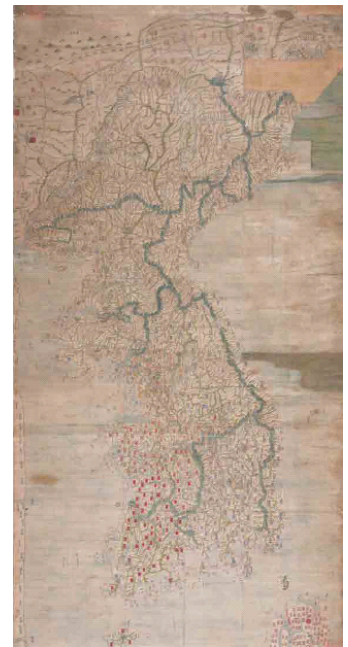
상주 용흥사 괘불, 보물 제1374호

지도예찬-조선지도 500년, 공간·시간·인간의 이야기(5)

-정상기의 <동국대지도>-

백승미 | 특별전시실 및 중근세관 114호실 | 18:00~18:30

<동국대지도>는 18세기 중엽 정상기가 제작한 우리나라 전국지도의 사본寫本으로, 그의 ‘동국대지도’ 원본에 가장 가까운 지도이다. 오늘날 정상기가 만든 원본은 전하지 않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이 지도는 그의 지도를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국’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별칭 중 대표적인 것이고, ‘대지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크기가 세로 272cm, 가로 147cm에 달하는 큰 지도이다. <동국대지도>는 이전 시기의 지도를 일신한 새로운 지도였고, 동시에 이후 우리나라 전통지도의 결정판인 <대동여지도>의 탄생에 밑거름이 된 지도이다. 실제로 신경준은 1770년에 20리 방안方眼, 모눈에 바탕을 둔 대축척 고을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기본 자료로 정상기의 지도를 활용했다. 또한 신경준의 지도는 이후 <대동여지도>와 같은 대축척 전국지도 제작의 핵심 자료가 되었다. 요컨대 <동국대지도>는 이후의 지도 발전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지도이다. 정상기가 <동국대지도>를 만들면서 얻은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는 압록강의 만곡부(활처럼 굽은 부분)와 두만강의 만곡부를 사실에 가깝게 그려낸 것이다. 이로써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지형이 정확해졌고, 비로소 국토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 뒤에는 북방지역의 방어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16세기 초 청나라가 등장해서 명나라를 꺾고 중원을 장악하였다. 청나라가 일으킨 두 차례의 호란으로 고난을 겪은 조선은 북벌을 버리게 되었다.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청나라와의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북방지역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게 된 것이다. 그의 지도학적 성취는 백리척百里尺이라는 축척을 고안하여 활용한 노력 덕분이었다. 일정한 비율의 축척을 국토의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지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더욱이 <동국대지도>처럼 대형의 지도를 만든다고 하면 축척의 중요성은 더욱 큰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축척을 지도 위에 막대 모양으로 직접 표현한 것도 중요한 진전이었다. 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국대지도>에는 축척이 그려져 있던 부분이 결실되어 있지만, 애초에 축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여, 2,200여 개에 달하는 지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했다. 오늘날의 지도에서 다양한 기호를 활용하는 것처럼, 정상기는 이전 지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기호를 많이 사용했다. 예컨대 각종 감영, 병영, 수영, 찰방역, 진보, 산성, 봉수, 고갯길 등을 특정한 기호로 표현해서, 한눈에 그곳이 어떤 유형의 지명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호에도 회화적 기법을 써서 고개나 봉수, 산성 같은 경우에는 기호 자체가 바로 그림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다. 또한 성곽이 설치된 고을에는 고을을 나타내는 테두리에 성곽의 모양을 그려 넣기도 했다. 특히 인문 요소의 표현 중에서도 도로의 표현이 상세하며, 도로의 중요도가 붉은 색으로 채색된 실선의 굵기로 표현되어 있다. 조운을 위한 서해와 남해 연안의 해로를 붉은 색 실선으로 표시한 점도 돋보인다.



동국대지도,
정상기(1678~1752) 원작
조선, 1755~1767년
비단에 색,
272.0×147.0cm, 족자
보물 제1538호

제60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9월 19일)

중국 명대 산수화

박성혜 | 308호 중국실 | 19:00~19:30

문인화풍의 절파화가 남영藍瑛

남영(1585-1664)은 절강성浙江省 전당錢塘(지금의 항주杭州) 출신으로 산수화를 잘 그렸다. 처음에는 당송대의 화법을 모방했으나, 후에는 원대의 황공망黃公望의 화법을 연구하여 독자적인 화풍을 이루었다. 남영은 흔히 절파浙派의 마지막 화가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오파吳派의 문인화풍을 따른 작품이 많다. 남영은 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문인들과 교류하고, 스스로 시문도 쓰며 명말을 대표하는 문인적인 직업화가라고 할 수 있다.

명말 중국의 화단에는 직업화와 문인화가들의 화풍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주요 원인으로는 명대 중기 강남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그림을 감상하고 소장하는 문인들의 생활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림을 구입하고 감상하는 주요 소비자들은 사대부, 부유한 상인, 대지주, 관리, 승려 등 각계각층의 신분에 속한 사람들로 그들은 화가에게 그림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화가들을 후원하였다. 따라서 화가들로서는 어느 한 화파에 치중하여 작품 활동을 하기 보다는 수요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화풍을 따랐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문인화와 직업화의 구별이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남영 역시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작품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1650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눈 내리는 깊은 계곡의 다리를 건너는 고사高士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좁고 긴 화면에 웅장한 산세와 잘게 나누어진 바위를 표현하였고, 나뭇잎에 채색을 하고 그 위에 흰색 눈꽃을 표현하여 산뜻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幾日寒山雪 몇칠 동안 한산(寒山)에 눈이 내려
凝雲凍不開 눈도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는구나.
欲尋高臥者 은거하는 이를 찾아 나서고자 하였지만
哦絮醉方回 눈을 노래하다가 취해서 곧장 돌아왔다네.



명. 남영 <눈 내리는 산>
국립중앙박물관 구3079

제60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9월 19일)

특별전<황금문명 엘도라도>(6)

오세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원주민 사회에서 족장들은 서로 경쟁하여 더 큰 명성을 얻고 한 지역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족장은 부족을 통솔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샤먼의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초자연적 힘을 획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샤먼의 지지를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샤먼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견문을 인도하는 직분이 있었고 족장은 부족을 통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족장은 동물의 힘을 빌려 절대권력을 나타내고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 샤먼처럼 변신하여 영혼의 세계에 접근하였습니다. 코와 귀, 입술 등에 새, 악어 등 변신하고자 하는 대상을 장신구로 만들어 착용하고 자연에서 동경하는 재규어나 박쥐 등 동물의 형상을 가면으로 만들어 착용했습니다. 가면은 그 어떤 의식용 물품보다 가장 명백하게 변신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생전에 착용됐든 사후에 사용됐든, 가면은 착용자를 변신시킵니다. 과거 원주민들에게 가면은 환각제를 흡입하는 것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거꾸로 된” 다른 차원, 다른 현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샤먼이 재규어 가면을 쓰면 재규어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주변인이나 물품들 또한 완전히 새롭고 복잡한 관계를 수반하는 변형을 겪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밖에 콜롬비아 원주민에게 지붕 밑에 매달려 생활하고 출산 하는 박쥐의 모습이 매우 신비로운 대상이었습니다. 박쥐는 유능한 사냥꾼으로 자신보다 큰 동물의 피를 흡혈하고 밤과 지하세계와도 관련있는 동물로 원주민들이 또 다른 영혼으로 선택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머리장신구와 코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박쥐인형은 족장이나 샤먼이 영적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변신한 모습입니다.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이러한 장신구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비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박쥐의 야간 시력과 민첩성 또한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박쥐 인형 장식은 특히 타이로나 지역에서 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1. 악어가면을 쓴 사람 모양 장식, 기원전200~기원후 1,300, 8.5×6.4cm



도2. 박쥐인간 장식, 900~1600년, 9.5×11.9cm